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6일 월요일 음 9월 10일 (2물)

기상정보

구름 많음



14-19℃
파고 0.5-1.5m
12-20℃
파고 0.5-1.5m
14-19℃
파고 0.5-1.5m
13-21℃

오 전	강 수	확 른	오 후
20%	제 주	10%	
0%	성 산	10%	
10%	고 산	10%	
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4/20℃

모레

구름 많음

16/19℃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타임, 97년만에 표지 로고 ‘VOTE’로 변경

미국 대선 투표 독려차 배치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97년 역사 상 처음으로 표지에서 ‘TIME’ 이라는 로고를 뺐다.

타임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11월 3일) 하루 전인 다음달 2일자 표지에서 로고 대신 ‘VOTE(투표하라)’라는 글자를 배치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이 표지에서 로고를 뺐 것은 1923년 첫 발행 이후 처음이다.

표지에는 또 투표함이 그려진 반다나(스카프 같은 큰 손수건)로 얼굴을 반쯤 가린 사람도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지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표지는 반(反) 트럼프 대통령 성향의 작가로 알려진 세퍼드 페어리가 디자인한 것이다.

페어리는 2008년 대선 캠페인 당시



2020년 11월 2일자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

미국 대선 결과보다 세계를 좌우할 사건을 엿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향후 수십 년 역사를 과거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 순간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 혼란과 상실의 한해였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부터 일어서기 시작했고, 우리도 한 세대에 한 번은 목소리를 바꿀 기회가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연립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백록담



고 대 로
경제산업부장

제주형 그린 뉴딜정책이 침체에 빠진 제주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뉴딜정책(New Deal)은 제32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증시의 대폭락으로 미국 경제불황이 시작되면서 파산자가 속출하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이에 1933년 루즈벨트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 구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New Deal

제주형 그린뉴딜 다시 ‘장밋빛 환상’이 되나

)을 추진했다. 1933~1935년까지의 뉴딜은 침체된 경제를 부흥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기적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긴급 은행법,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 설립, 일자리 안정책, 금주법 폐지, 연방차원의 복지정책 등을 추진했다. 1935년부터는 노동조합 지원책과 사회보장법, 다양한 원조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런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해 이달 발표한 ‘제주형 뉴딜’ 정책을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문제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주형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 모두가 재생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대전환 시기 미래를 선도해 나갈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 ▷제주의 경험과 대한민국의 성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023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유치를 제안했다.

이런 ‘제주형 뉴딜’이 침체된 제주경제를 회복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력거래 자유화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원 지사의 임기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2030년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서울수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배출 가스가 ‘0’인 전기차·수소차만 등록을 허용기로 했다.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은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제주에 전기차 시장 규모를 늘려주는 것에 그칠 것이다. 지난 8월말 기준 도내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699대로 전국 전기차의 17.6%를 차지하

고 있으나 제주에 전기차 관련 사업은 전기차 폐배터리처리장인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이 고작이다.

미래혁신인재 10만 양성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2022년까지 정규직·양질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했으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조교사를 일자리 창출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일자리 통계 부풀리기만 이뤄지고 있다.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유치 계획은 국비지원을 받는 1회성 이벤트로 제주 경제성장과 무관할 것이다. 지난 2012년 9월 제주에서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됐으나 경제성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제주도정은 제주형 그린뉴딜정책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사업환경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정책은 도민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열린마당

제주에는 두 개의 공항이 꼭 필요하다



노 현 구
성산리 전 개발위원장

신공항 건설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역대 제주도지사들은 모두 제2공항을 선거공약으로 내 걸었고 이를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만장일치로 이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수년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제주도민에게 하늘 길은 대중교통이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다. 계류장, 주기장도 모자라고 활주로는 용량초과로 항상 불안하다. 이렇듯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지 오래 됐다. 상상하기 싫지만 만분지일이라도 일어난다면 항공기 사고는 대형 참사이지 않은가?

안전의 가치는 최우선 과제이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이다.

현 공항을 확장한다는 것은 40인승 버스를 늘려 50~60명을 억지로 태우겠다는 말과 같다. 버스 한 대를 더 추가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30명씩 태워야 하는 것 아닌가? 현 공항은 늘릴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2개의 공항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 공항의 활주로를 연장하는 문제를 간단하다 하는데,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 엄청난 건설비용, 제주시의 도로, 교통, 쓰레기, 오·폐수 문제들을 무시하는 억지논리다. 더욱 가증되는 소음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활주로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리고 고치면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국가에서 미래 100년을 위한 공항을 지어준다 하지 않는가? 국가가 모든 검토를 거쳐 발표한 제2공항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대중적 안목으로 승복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하지 말자.

코로나를 이기는 쉬운 방법은 바른 손 씻기



강 윤 정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엄마! 손을 깨끗하게 잘 씻으면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대요.”

어린이집을 다녀와 집에 온 다섯 살 아이가 구석구석 꼼꼼하게 손을 씻으며 말한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스스로 자주 손을 씻는 아이를 보면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올바른 손 씻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일상에서의 올바른 손 씻기 실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체나 표면을

만진 후 손을 씻기 전 눈, 코 또는 입을 만짐으로써 감염될 수 있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바이러스와 세균이 손에 남을 수 있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을 모으고 엄지손가락과 손톱 밑까지 구석구석 씻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손을 잘 씻으면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인플루엔자, 감기, 장티푸스, A형간염 등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올해 각종 감염병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외 호흡기 감염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등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처럼 손 씻기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많은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백신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하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길 당부 드린다.

진정한 제주인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높은 저장성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임상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유효율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필리핀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2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라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농가

당도를 올리기 위해 10월초부터 3~4일 간격
해피한그린 3병 + 글루칼2포를 1,000ℓ(50말)에 3번 연면시비

양배추·브로콜리·
마늘·감자·당근

※ 파종이 늦은 농가는
잘커진액 5ℓ + 썰파고 8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찬바람이 불기전(10월 중·하순)
희토락F 5ℓ + 썰파고 8ℓ + V패스 4ℓ + 살충제 2,000ℓ(100말)에 살포
→ 양배추, 프로콜리는 불병·뿌리혹병 예방, 감자는 시들음병 예방

제 품 소개

■ 해피한 그린 : 희토류가 들어 있어 당 상승 효과

■ 글루칼 : 글루콘산이 99.9% 들어있는 포도당 칼슘

■ 썰파고 : 제독처리된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무름병, 흰가루병, 노균병, 탄저병, 녹병 등)

■ V패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양배추 불병, 뿌리혹병, 밀싹음병 등)

■ 잘커진액 : 동물성 아미노산으로 만든 영양제로 흡수율이 87~88%나 되는 영양생장 촉진제

■ 희토락F : 희토류와 부식산 및 철분이 들어있는 비대축진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